위메프, '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 사전예매 할인

위메프가 26일까지 '2017 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을 할인 판매한다. 사전예매가 8000원(현장구매가 1만2000원)에서 추가 즉시 할인이 적용된 7400원(1인 기준)에 내놨다. 구매 즉시 휴대폰으로 모바일 바코드 입장권이 발송돼 현장에서 별도의 입장권 교환 없이 입장 가능하다.

"정부 산하에 관광 컨트롤타워 생겼으면"

비즈 & 피플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장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으로 우리 관광산업을 겨냥해 3월15일 한한령을 내린 이후 국내 업계는 유례없는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여행사, 숙박, 교통, 면세점, 쇼핑 등 관련 분야의 매출이 떨어지고 적지 않은 업체가 경영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한한령의 거센 파고를 현재 최전선에서 맞고 있는 여행업계의 수장,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을 만나 업계가 처한 상황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장은 관광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각 부서를 조율할 최고 컨트롤타워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중국전담 여행사 160개 곳 개점휴업
반한·반중 감정으로 시장회복 비관적

경영안정자금 지원 없는 대책 아쉬워
전용된 관광공사 서울 사옥 반환 절실

-중국이 한국 단체관광을 사실상 금지한 지 한달이 넘었다. 현재 관광업계 상황은.

"심각하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 조사를 했는데, 중국전담 여행사 160개 중에 휴업상태인 곳이 30%를 넘었다. 나머지도 문은 열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이다. 시장다변화를 하려 해도 전문인력, 네트워크, 사업경험 등이 중국에 특화되어 있어 쉽지 않다."

-그동안 중국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 상황으로 언젠가 닥칠 위기였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큰 시장인 것은 맞지만 우리와 중국, 일본 사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유동성이 있다. 사회 전반적인 여론도 그간 중국 편중을 부추겼다. 이번에 양국관계의 실체적 진실을 본 것이다. 어떤 사업이든 한 쪽에 몰리면 리스크가 크다. 중국 방한관광객이 800만 명인데, 그 대체시장 비중도 사실 800만 정도 있어야 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3월은 한한령이 중순부터 시작돼 대략 15만 명 정도 취소가 있었다. 하지만 4월 들어서면서 예약률이 지난해 대비 20% 수준으로 확 줄었다. 그나마 이전에 예약한 것이고 신규는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이 3개월 이상 가면 중국 전담여행사는 절반도 못 버틴다. 연말까지 갈 경우 여행사 매출 감소만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양국의 민감한 현안이 해결되면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을 두고 국민감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반한감정을 자극했고, 그 반발로 국내에도 반중감정이 생겼다. 양국 현안이 풀려도 감정의 앙금이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업계는 헝클어진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절실한 정책지원은 무엇인가.

"정부도 나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타 산업과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미래 산업으로 늘 관광을 말하면서 지금 같은 위기에 무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정책자금은 담보가 필요한 대출이다. 조선, 해운업 같은 다른 산업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 각 부서를 조율할 최고 컨트롤타워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얼마 전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내국인 해외여행객이 국내서 쓰는 돈이 해외지출의 80%에 달했다. 해외여행을 단순히 외화 유출로만 보던 시각에서 보면 뜻밖의 결과다.

"그래서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국가경제에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1960년대 초에 나온 개념인데, 60년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관광은 상호교류다. 이제 1700만 명이 넘게 해외서 들어오고 2000만명이 나간다. 국내에서도 연간 3000만 명이 움직인다.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고 그런 교류와 움직임이 계속 이뤄지는 것이 관광산업의 발전이다."

-여행업협회는 그동안 관광교류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올해는 어떤 것을 계획하는가.

"6월20일부터 24일까지 대만관광협회 교류 방문을 인천시에서 연다. 지난해 우리가 타이중에 갔고, 올해는 우리 지방 관광을 소개하기 위해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JATA(일본여행업협회) 페어를 9월에 방문한다. 또한 아세안 10개국 관광단체 연합회가 있는데 그쪽과의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들은 인·아웃바운드 시장을 모두 중시하는데 우리는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규모가 상당해 서로 이해가 맞는다. 그 외에 관광의 미래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5월 말 개최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에 들어설 새 정부에 관광업계 입장에서 바라는 게 있다면.

"관광은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또한 교통, 유통, 건설,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 특성을 감안해 대통령 산하에 관광산업위원회 같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생겼으면 좋겠다. 또 하나 구체적인 희망사항이 있다면 현재 청계천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서울 사옥을 관광업계에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관광과 관련한 정책과 마케팅 기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하려면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한군데 모여야 하는데, 한국관광공사 서울 사옥이 딱 맞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양무승 회장

▲1954년생 ▲송도고, 단국대,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1999년 ㈜투어이천 대표이사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광위원회 위원 재임 ▲2015년 은탑산업훈장

고어텍스 서라운드 신발 투습·방수 굿!

고어코리아가 22~23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고어텍스 서라운드 신발의 사이드솔 오프닝 기술을 다채롭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고어텍스 서라운드 다이나믹 쾌적 스테이션' 행사를 개최했다. 고어코리아는 고어텍스 서라운드 신발제품의 '전 방향 투습, 견고한 방수' 기술을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존을 마련했다. 방수기능을 소개하고 있는 모델들. 사진제공 | 고어코리아

아시아나 항공권 이벤트

29일까지…일본·중국·동남아·제주 노선

아시아나항공이 국제 항공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Star Alliance) 20주년을 기념해 29일까지 국제선 20개 노선과 국내선 제주 출·도착 5개 노선에 대해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제선은 5월 8일부터 31일 사이에 출발하는 일본 7개 노선(하네다·나리타·삿포로 등), 중국 8개 노선(베이징·상하이 푸동·항저우 등), 동남아 5개 노선(홍콩·호찌민·델리 등) 등 총 20개 노선이 대상이며, 왕복총액 최저운임 13만9400원부터 한정 판매된다(노선별 최저운임 상이).

국내선의 경우 5월31일까지 제주 출·도착하는 김포, 광주, 여수, 청주, 대구 등 5개 노선을 대상으로 편도 최저 운임 주중 2만3000원부터, 주말 2만5000원부터 한정 판매한다.

이벤트 기간에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1997년 5월 결성한 스타얼라이언스는 세계 28개 항공사를 회원사로 둔 최대 규모의 항공사 동맹체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3월 1일 15번째 스타 얼라이언스 정식 회원사로 가입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SK텔레콤T1, LCK 6회 우승 "브라질 간다"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결승 KT롤스터 3대0 격파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 티켓 획득

세계 최강 SK텔레콤T1이 국내 '리그오브레전드'(LoL) 리그에서 6회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SK텔레콤T1은 지난 22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7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결승에서 통신 라이벌 KT롤스터를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정규 리그 전적은 SK텔레콤T1의 우세였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연전연승한 KT롤스터 기세가 만만치 않아 당초 호각세가 예상됐다. 하지만 SK텔레콤T1은 불리할 때는 상대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었고, 유리한 고지를 점했을 때는 철옹성처럼 단단한 수비를 선보이며 완승을 거뒀다. 접전이 치열했던 1세트 초중반을 제외하면 주도권을 거의 내주지 않았다. 1세트에선 '페이커' 이상혁이, 2·3세트에선 '피넛' 한왕호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졌다.

한편 이번 우승으로 SK텔레콤 T1은 트로피와 함께 상금 1억원(총상금 2억95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아울러 LCK 스프링 우승팀 자격으로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인 '2017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MSI)'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mga.com

SK텔레콤T1이 '2017 LCK 스프링' 결승에서 라이벌 KT롤스터를 3대0으로 제압하고 6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승 확정 뒤 세리모니를 하고 있는 SK텔레콤T1 선수들. 사진제공 | 라이엇게임즈

"농촌 일손돕기 함께해요"

NH농협금융지주 예산·의정부 농가 봉사활동

NH농협금융지주 임직원 봉사단이 최근 충남 예산군 및 경기 의정부 농가를 방문해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오병관 부사장을 비롯 경영기획부문 임직원들은 충남 예산군 소재 배 농장에서 배 화접작업을, 홍재은 상무를 비롯한 사업전략부문 임직원들은 경기 의정부 귀락 마을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일손돕기는 '범농협 전국 동시 영농지원 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기획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 오병관 부사장은 "농협금융은 사회공헌 선도 금융기관으로서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농협의 존재이유인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로 키우세요"

전국 어린이 코딩 경진대회 5월27일
초등학생 대상 30일 참가신청 마감

스포츠동아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어린이 코딩 홈스쿨을 운영 중인 와이즈교육(대표 황규동)이 주관해 5월27일 낮 12시부터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 어린이 코딩 경진대회 참가 신청 마감이 30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내 최초의 코딩 대회로 (사)대한민국청소년로봇연맹이 후원한다.

대회는 초등학교 1~2학년 부문, 3~4학년 부문, 5~6학년 부문으로 나뉘어 치른다. 미국 MIT 대학에서 개발한 스크래치(scratc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시간 동안 코딩 실력을 겨루게 된다.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공식 홈페이지(www.codingcontes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원.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동아일보 사장상), 금상(스포츠동아 사장상), 은상(대한민국청소년로봇연맹 총재상), 동상(와이즈교육 대표상), 기타 장려상 등을 시상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코딩 능력은 단순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넘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의 필수조건으로 부상했다.

이로 인해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에 걸쳐 유아 때부터 의무 코딩 교육을 강화한 지 오래됐다. 우리나라 역시 2018년부터 정규 교육과정 편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공사 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스타벅스, 6월까지 '우유사랑라떼' 캠페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가 4월24일부터 6월19일까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와 '2017 우유사랑라떼'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카페 라떼'를 주문하면 한 사이즈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우유사랑스티커'를 부착한 음료를 제공해 국산우유의 우수한 품질과 사용촉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1잔당 50원의 기금도 적립해 최대 5000만원을 조성, 소외계층을 위한 'K-MILK 사랑의 우유 보내기 운동' 및 유관단체에 기탁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